

소외계층 시설 '녹색복지공간' 확대 조성

전남도, 무장애 나눔길·나눔숲 등 총 7개소 16억 투입 사회적 약자에 쉼터 제공, 정서적 안정·심신 치유 기대

전라남도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거주·이용한 시설에 녹색복지공간을 확대 조성키로 했다.

올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 사업' 공모결과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최다 선정돼 '무장애 나눔길' 3개소와 '복지시설 나눔숲' 4개소 등 7개소에 16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복권수익금(국비)을 배분받아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사회경제적 배려계층의 거주 환경을 개선하고, 산림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무장애 나눔길'은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보행 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숲을 거닐 수 있도록 목포 삼학도를 비롯 광양시 서산, 진도군 의신면 사천리 등

3개소에 국비와 지방비 14억원을 투입해 산책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복지시설 나눔숲'은 순천 향림실버빌과 함께 곡성 에덴어린이집, 강진 사랑의 집·은빛마을 등 4개소에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숲과 쉼터를 구축키로 했다.

전라남도는 사전 주민설명회를 비롯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전문가 자문과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녹색자금사업이 도입된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으로부터 194억 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설 나눔숲 65개소와 지역사회 나눔숲 24개



전라남도는 사회적 소외계층이 거주·이용한 시설에 녹색복지공간을 확대 조성키로 했다. 사진은 무장애나눔길 입간판. /전남도 제공

소, 무장애 나눔길 7개소를 조성했다.

박현식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장은 "녹색자금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쉼터와 산책 공간을 제공해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심신 치유에 매우 유익한 사업이다"며 "녹색복지공간 확대를 위해 내년 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

한편 전라남도는 올해 2월 지난해 '녹색자금 지원사업 평가'에서 그동안 조성된 숲이 취약계층과 지역주민들의 정서안정과 함께 심신 치유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평가받아, 광역단체부문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박정오 기자 jopark@



전남소방 코로나19 대응기록 책서 사진. /전남소방 제공

전남소방본부, '코로나19 대응·방역 기록' 답아 대응 과정 체온에 비유... '카툰 형식' 제작 이체

전남소방본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전남소방 120일간의 기록을 담은 책서 '37.5° C 그리고 봄'을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코로나19' 대응 준비에 들인 시간 지난 1월 13일부터 최근 5월 11일까지 전남구급대의 대구경북 이송지원을 비롯 의용소방대 헌혈, 마스크 판매 지원 등 대응 활동을 기록하고 공유코자 제작했다.

총 130쪽 분량의 책서는 '코로나19' 발생 전 예방활동과 발생 직후 치열했던 전남소방의 대응상황 등을 인간의 체온변화

에 비유해 풀어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카툰 형식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었다. '37.5° C'는 '코로나19' 발병 의심 기준이 된 체온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사태에 대응한 일련의 과정을 정상체온과 미열, 고열에 비대 기록으로 담았다.

내용은 ▲'코로나19' 대응체계와 과정 ▲2차 지역감염 확산 차단 ▲대구·경북 119구급차 동원령 ▲'코로나19' 피해지원 ▲시민 협력 사례 ▲현장 미담사례 등이다. /맹행금 기자

전남도, 돼지열병 방역 강화 양돈농장 집중소독·실태 재정비

전라남도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농가 차단방역을 강화키로 했다.

전라남도에서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경기·강원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은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소독효과가 저하되고 빗물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높아지는 등 차단방역에 어려움이 가중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발생지역 돼지, 분뇨 등 위험요인의 반입금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도내 시군에 저점소독시설(22개소)을 운영하는 등 양돈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또한 '축산환경 개선의 날'인 매주 수요일에는 농협 공동방제단과 방역기관 방역차량 300여대를 총 동원해 양돈장,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소독과 함께 쥐, 파리, 모기 등 해충 구제작업을 펼친다.

특히, 집중 호우기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위험주의보 발령과 함께 도, 시군 등 방역대책 상황실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비가 그친 후 농장 일제소독, 생석회 벨트 구축, 멧돼지 외부 울타리 등 재정비를 위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태엽 기자



광주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김종호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 개최

진입로 개설 등 연계 보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대응 전략 마련 논의

광주광역시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김종호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혁신도시 연구기획 TF 총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20 혁신도시 연구기획 연계사업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고 공공기관 추가이전 유지를 위한 대응전략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연계 협력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분과위원회를 8회 열어 분과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과제 발굴 등을 논의해왔다.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광주-나주버스의 노선정보를 이용객이 알기 쉽게 광역 BIS 효율적 통합관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광주-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광주-강진 고속도로 사업 중 제7공구)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등이 있다. /김정관 기자

경 좋은 섬, 이야기 섬, 신비의 섬, 체험의 섬 등 5개 테마로 나눠 선정됐다. '걷기 좋은 섬'은 명소를 둘러보며 등산, 트레킹을 즐길 수 있는 섬으로 외달도와 낭도, 금오도, 연흥도, 청산도, 반월·박지도, 애도 등 7개 섬이, '풍경 좋은 섬'은 해안선, 모래사장, 노을 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섬으로 거문도, 안마도, 관매도, 자은도 등 4개 섬이 선정됐다. /김정관 기자

전남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전국 최다

16개 섬서 언택트 힐링여행...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전라남도는 29일 행정안전부의 올해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섬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에서 따르면 행안부는 섬이 가진 다양한 관광자원을 국민에게 알리고, 섬 지역의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16개 섬은 여행자의 취향을 고려해 걷기 좋은 섬을 비롯 풍

광주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복구반 운영

시설물 점검·사고시설 복구
장마철 집중호우·태풍 대비

광주광역시시는 장마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복구반을 운영한다.

교통안전시설물은 24시간 상시 운영되며, 작동이 중단될 경우 교통혼잡과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지방경찰청,

교통시설 유지보수업체 등이 참여한 긴급복구반을 2개반 총 30여 명으로 편성하고, 장마철 집중호우와 강풍 등으로 인한 교통시설 파손, 감전 위험 등에 대비키로 했다.

먼저,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교통정보센터 CCTV 107대, 통합관제센터 CCTV 6593대의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집중호우 시에는 남구 무등시장 등 침수취약지역 16곳에 설치된 교통신호기를 사전점검하고 특별 관리한다. /박은진 기자

전남도민일보 캠페인
http://www.jndomin.kr/

산업재해 사고 사망 상해부위 1위는 '머리'

안전모 한번더 확인하면
모두가 안전합니다.

당신의 안전이 가족의 행복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